

광주전남도지회, 제6·7대 회장 이·취임식



지회장 : 전영옥(나주)

감사 : 배후남(강진), 이정성(나주)

사무국장 : 김상범(나주)

한국오리협회 광주·전남도지회(전영옥 지회장)는 5월 17일(목) 전남 영암군 영암축협 본점 대회의실에서 마광하 지회장 이임식 및 전영옥 신임 지회장 취임식을 개최했다.

이날 이·취임식에는 한국오리협회 김만섭 회장과 오리협회 각 지회장, 다솔 문순금 대표를 비롯한 각 오리계열사 대표와 광주·전남도지회 오리사육 농가 등 100여 명이 함께했으며, 전남도청 배윤환 축산정책과장, 김상현 동물방역과장, 나주시청 형남열 축산과장, 검역본부 손한모 과장 외 농업인 단체 대표와 각 축산단체장이 참석해 자리를 빛내주었다.

한편, 오리농가의 경영안정 지원사업과 AI 예방 등에 적극 노력해 주신 나주시청 축산과 정희봉 차장, 영암군청 산림축산과 가축방역팀 오원식님 께 한국오리협회 전 회원들의 감사의 마음을 담아 감사패를 전달했다.

마광하 전 지회장에게 그간의 노고에 감사하는 공로패 전달식을 진행했으며, 마 전 지회장은 이임사를 통해 “이



자리에 계신 분들이 많은 도움을 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다”며, “신임 지회장께도 많은 격려의 힘을 보내주시길 바란다”고 말했다.

제7대 광주·전남도지회장으로 취임한 전영옥 신임 지회장은 “오리협회 광주·전남도지회 발전에 힘써주신 전임 지회장님, 지자체, 축협관계자와 오리계 열사 및 사육농가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”며, “오리산업 발전이라는 대승적 목표를 향해 함께 화합하고 상호 존중과 배려의 정신으로 지회장이 먼저 노력하겠다”고 취임 소감을 밝혔다.

